

光州日報 연중 캠페인
함께 할수록 커지는 문화 나눔
Hand in Hand

<제2부> 문화 향기 현장속으로
 <34> 광주 연말 문화나눔 전시·공연

“작은 정성 큰 기쁨...그림으로, 공연으로 온정 나눠요”



연말을 맞아 이웃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전시와 공연들이 잇따라 열린다. 오는 18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리는 '행복나눔-기금미련 소품전' <사진 왼쪽>과 오는 14일 광주시청에서 공연을 갖는 꿈따리 유랑단.



따뜻한 사랑과 나눔이 그려온 연말이다. 문화를 나누며 이웃들에게 행복을 전하는 작은 움직임들이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문화를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무료 공연들이 준비돼 있으며 지역 갤러리와 미술인들도 힘을 보태 불우이웃돕기 기금마련 전시회를 여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광주신세계갤러리는 지역 작가들과 함께 18일까지 '행복나눔-기금미련 소품전'을 열고 있다. 광주신세계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의 작품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우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작품들은 30만원~100만원 대 이하로 판매되며 서양화·한국화·조각·판화·사진·공예·미디어 등 다양한 작품을 아우르고 있다. 황영성·우제길·최영훈·한희원·송필용·박정규·손봉채·이이남·이정복·윤남웅·박수만 등 작가 58명이 모두 70여점을 내놓았다.

광주빅마켓 매곡점에 위치한 시안갤러리 역시 오는 31일까지 송년 특별 기획 '작은 그림, 큰 기쁨'전을 통해 이웃사랑을 전하고 있다. 김종일·노의웅·진원장·최영훈·황영성·한희원·강남구·김상영·김익모·류재웅·박구환·허정아씨 등 지역 작가들의 소품을 30만~100만

전시회 열고 수익금 모아 불우이웃돕기 '꿈따리 유랑단'·극단 '터' 등 따뜻한 공연

원에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획전이다.

지난 2일부터 전시를 열고 있는 시안 갤러리는 판매금액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며 지난 8일까지 조성된 300만원과 김장 김치 10kg 100박스를 광주엠마우스복지재단 등 불우시설에 전달했다.

광주일보와 전남대문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로 베이스 액션 아트'에서도 그림을 통해 사랑을 나눌 수 있다.

20~25일까지 광주 대인시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지역 작가 120명이 600여점을 출품하는 대규모 아트페어로 수익금의 일부를 불우이웃돕기로 내용을 예정이다. 또 참여작가들이 제작한 신년 연하장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들을 돕는 '신년연하장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림 '클론' 출신의 강원래가 이끄는 '꿈따리

유랑단'은 지역 청소년과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광주를 찾는다.

지난 9월 광주고통정보학교에서 문화 나눔 공연을 가졌던 꿈따리 유랑단은 오는 14일 오후 3시 광주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희망나눔 콘서트' 무대에 선다. 강원래(하반신장애), 심보준(안면장애가수), 조성진(한 손 미술사), 최재식(한손 무에타이 챔피언)씨 등 장애를 딛고 당당히 문화 주역으로 우뚝선 꿈따리 유랑단원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꿈따리 유랑단의 공연전에는 2008년 가족애 음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꿈을 품은 메아리'(광주에육원)은 포크 그룹 나무자전거의 무대가 펼쳐진다.

참가를 원하는 장애인이나 청소년들은 광주 여성희망포럼(062-613-2265)에서 무료로 터

켓을 받을 수 있다.

광주에서 활동중인 극단 '터'는 오는 17일 오후 5시 광주장애인복지관 문화센터에서 인형극 '혹부리 영감님'을 공연한다. 통합교육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공연은 복지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과 지역 사회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2월에는 특히 따뜻한 공연들이 많았다. 광주문예회관은 9일 열린 '2008 송년콘서트'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문화 소외계층을 초대했으며 광주연시안 요텔클럽도 다문화 가족을 초청,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또 지난 지난달 광주문예회관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 공연을 가졌던 광주웹버스터즈는 10일 화순전남대 병원에서 나효준(7세)군 등 4명에게 연주회 수익금 400만원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후원: **Land Life Love** 한국토지공사 광주지부, **한국전력공사**



올해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인기를 모은 뮤지컬 '시카고'

문화바우처 활기

광주 올해 7천800여명 이용...내년 예산 대폭 늘 듯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진행 중인 2008년 문화바우처가 이용자가 7천 8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문화 바우처는 광주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나눔 사업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1천만원 늘어난 9천 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올해는 바우처 회원 등록 절차가 간소화 되면서 단체 위주로 진행됐던 지난해에 비해 일반 회원 수, 특히 가족 단위 회원 수가 크게 늘어난 혜택의 폭이 넓어진 게 특징이다.

올해 진행된 프로그램은 연극, 뮤지컬, 국악, 전시 등 다양한 장르에서 모두 71개 작품이었다. 뮤지컬 작품으로는 '시카고'와 '맘마미아', '헤드윅',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등이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연극 '늘근도둑 이야기', '라이어', '어린이 난타' 등 서울 지역 작품들의 호응도가 높았다. 또 바로크 루벤스전, 광주비엔날레

등 굵직한 전시회가 잇따라 열려 문화 갈증을 해소해 줬다.

하지만 지역 단체들의 공연은 호응도가 적어 아쉬움을 남겼다. 12월 문화바우처 프로그램은 신청 마감일 끝난 가족 뮤지컬 '뽀로로와 요술 램프', '장사의 소리 관-꽃구경', 내뽀소리 민중예술단의 창작관현악극 '애가' 등이다.

올 마지막 프로그램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순정만화'로 오는 25일까지 인터넷 사이트 신나는 예술여행(http://artstour.or.kr)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는다.

한편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2009년 문화바우처 사업은 더욱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인다.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바우처 예산을 올해 26억원에서 40억원으로 증액함에 따라 각 지역에 할당되는 예산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당신의 발은 건강하십니까?
 발의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발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 발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 발의 건강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

북/선/동 아이엔리시아

출근차량대리점, 렌터카, 세차, 각종 모임 및 행사(이벤트) 지원 등을 원하시면...

www.falysia.com | 062) 671-1199